

K-김의 뿌리...최초 김 양식지 역사성 조명

광양김시식지, 400년 전 썰쫂이 양식법 보급

1643년 김여익 창안...‘K-푸드 김’ 전통 기려

광양시가 인류 최초 김 양식의 현장이자 김 수출 10억 달러 시대를 연 주역인 세계 유일의 ‘광양김시식지’를 꼭 방문해 봐야 할 광양의 역사·문화 명소로 소개했다.

최근 K-콘텐츠와 K-푸드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광양김시식지’는 K-푸드 김의 뿌리를 간직한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김시식지는 400년 김 산업의 역사가 시작된 상징적 공간으로, 인류 최초로 김 양식법을 고안해 바다를 경작의 영역으로 확장한 김여익 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김여익은 병자호란 당시 의병으로 활약했으나, 조정이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자 통탄하며 광양 태인도에 은둔했다. 그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나무에 해초

가 걸리는 모습에서 착안해 1643년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의 특징을 활용한 ‘썰쫂이 양식법’을 인류 최초로 창안·보급했다.

수라상에 오른 김의 맛에 감탄한 인조 임금에 ‘광양의 김여익이 진상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부르게 됐다는 흥미로운 유래도 전해진다.

후손들은 매년 음력 10월이면 김시식지 내 인호사에서 제향을 올리며 김여익의 업적을 기리고,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용지큰줄다리기’ 전통도 30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양김시식지는 김의 유래와 발전사, 생산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김 역사관과 유물전시관 등으로 꾸며져 있어, ‘바다의 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한 장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운영시간



광양김시식지 내 영모재(좌), 인호사(우)의 모습.

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설과 추석 명절 당일에만 휴관한다.

방문객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친절한 안내를 통해 김의 역사와 전통, 세계로 뻗어나간 K-푸드 김의 긴 여정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K-김밥, 김부각, 김스낵 등으로 발전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김의 수출액은 1조원에 이른다”며 “그 뿌리가 되는 인류 최초 김 양식지, ‘광양김시식지’ 역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일 배알도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광양 전통 김 만들기, 보물찾기, 용지큰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펼쳐지는 ‘제4회 광양 배알도 수변축제’가 열린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곡성,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10일부터 군민 1인 30만원

곡성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0일부터 지급한다.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며 곡성심정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며, 신청·지급은 읍·면사무소와 모바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불가하며, 이후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구에 방문해 신청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12월 8~12일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기준일 이전 출생 신고된 아동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불명자나 전출자, 사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박정철 기자 holbul@

상인·청년점포·예술인 손잡고 야간 축제

구례, 8일 ‘제11회 오맥축제 ‘오라 구례’ 개최

지역상인·청년점포·예술인이 함께하는 구례군의 대표 야간 축제의 막이 오른다.

3일 구례군은 오는 8일 구례읍 5일시장 일원에서 ‘가을밤! 낭만가득!! 제11회 오맥축제 오라!구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맥축제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상권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상생형 야간문화 축제다.

이번 축제는 ‘가을밤! 낭만가득!!’을 주제로, 지역상인회와 청년점포, 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소규모 맥주축제로 진행된다.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가수 주태령, 정소라, 김한나, 러브어스 앙상블의 무대가 이어지며, 가을밤을 낭만적인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500원에 500cc 생맥주 1잔(1인 최대 4잔)을 제공하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교환권(쿠폰) 제도를 운영한다. 또 청년점포와 주민점포가 참여해 튀김, 부추전, 닭강정, 떡볶이, 치킨 등 다양한 안주거리와 수제빵, 공예품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버스킹 공연과 게릴라 이벤트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 마지막 오맥축제가 구례읍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상인, 방문객이 함께 웃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대표 야간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편백숲의 고장’ 장성, 목재 문화 발전 앞장

목재기술위원회 회의
‘목재문화체험장’ 논의

장성군 목재기술위원회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장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를 활용한 교육·체험 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장성을 영천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도·군비 52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목재기술위원회는 ‘장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다. 경제·인문사회·목재문화·목재·목구조 등 분야별로 11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목재문화체험장 기본·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문화·교육적 활용 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대상지 변경 심사, 시설 건립 방향 등 다



김한중 장성군수(중앙)가 목재기술위원들과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양한 안건을 놓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체험장 조성은 ‘목재문화 매카’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목재기술위원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산림청 ‘국산목재 목

조건측 실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1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2029년까지 황룡면 월평리에 다목적 강당, 작은 도서관, 돌봄 공간 등을 갖춘 ‘산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특히 오래돼 베어내야 하는 편백나무들을 공사에 활용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장성=이행범 기자 lnb6699@

여수, 국제 크루즈 유치

‘중국 포트세일즈’ 참가

여수시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년 중국 포트세일즈(Port-Sales)’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부산, 제주, 인천, 서산 등 국내 주요 크루즈 기항지 도시가 공동으로 참가한 가운데 중국 국적의 ‘아도라 크루즈’를 비롯해 MSC, 로열캐리비언, 코스타 등 주요 글로벌 크루즈 선사 6개사와 현지 여행사 17개사가 참석했다.

여수시는 행사 기간 중국 크루즈 업계 관계자들과 1대1 B2B 상담을 진행하며 여수항의 우수한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크루즈 기항 인센티브 제도 등 선사와 여행사 대상 맞춤형 설명을 통해 여수의 경쟁력을 알렸으며, 섬과 노라리 투어를 소개하는 등 여수에서만 가능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를 적극 알렸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37년 기술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특수벨트 가공전문

오양물산

오양물산주식회사
O-YANG PRODUCT CO., LTD.

·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34-26(장덕동) · 제2공장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125(하남동)

· Tel : 062)953-0006 · Fax : 062)955-0030 · URL : http://www.oyangms.com